하나금융그룹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SYMPHONY SONG
SHINIK HAHM

신년음악회

New Year Concert

지휘 함신익

첼로 김민지

01. 10 Fri
—
7:30 PM
—

LOTTE
CONCERT HALL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ONGSAN WEMADE FST SEBONG GOLFZON Play Different DSK 화광교역(주)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풍산

말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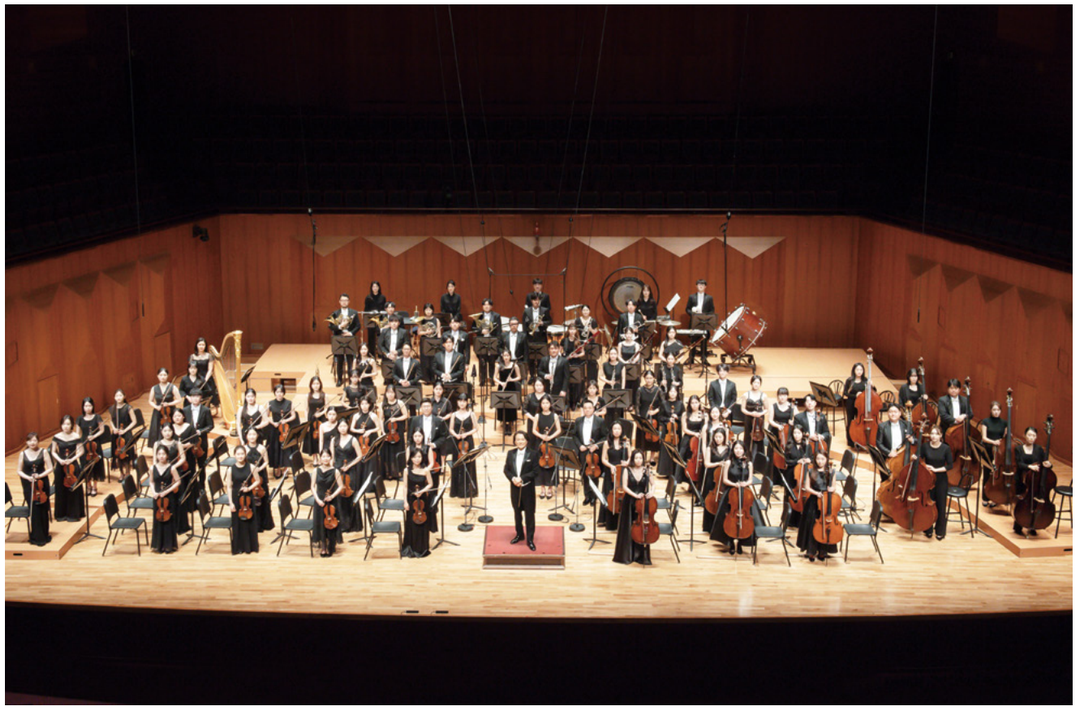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함신익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주)다진
(주)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주)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응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딴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신년음악회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verture, Op. 43

Antonín Dvořák
1841~1904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김민지, Cello

I. Allegro ····· 활기찬 빠르기로
II. Adagio, ma non troppo ····· 침착하고 편안하게
III. Finale. Allegro moderato ····· 피날레. 조금 빠르게

- Intermission -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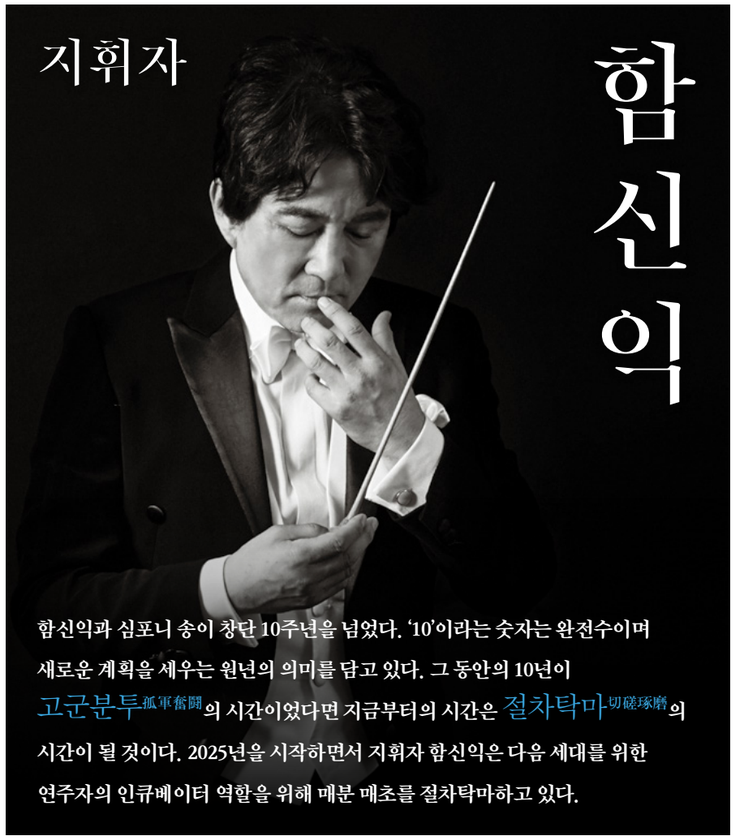
Symphony No.5 in c minor, Op. 67

I. Allegro con brio ····· 씩씩하고 빠르게
II. Andante con moto ····· 활기차고 편안한 걸음걸이로
III. Scherzo. Allegro ····· 스케르초. 활기찬 빠르기로
IV. Allegro ····· 활기찬 빠르기로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민하	김지연	김희영	문수빈
	박경아	박윤정	박지윤	변정호	선유란	오하은	이재흠
	이지현	이화진	전지은	정예린	정혜은	최예성	최주은
	한예솔						
비올라	서예슬	김다미	김용수	김효경	안예림	윤소은	장윤정
	조선유						
첼로	홍보경	오소연	정다인	정혜솔	최 영	최예지	허규희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선률	강주형	김태현	방응규	윤영진	
플루트	황예찬	이예림					
피콜로	김예건						
오보에	Simon Lee	김소정					
클라리넷	이환희	최윤석					
바순	김윤지	어지은					
콘트라바순	이승은						
호른	조종현	김효정	주혜준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트럼본	이윤호	김재원	박준현				
튜바	강덕현						
팀파니	곽선일						
타악기	김슬민						
크리에이티브팀	신현숙	고부현	구헌정	김소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 악장
※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창단 10주년을 넘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원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의 10년이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주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 매분 매초를 절차탁마하고 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윙'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윙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첼리스트
김민지

심포니 송의 첫인상

심포니 송은 많이 듣고 알려져 있어서 매우 기대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최근 리사이틀에서 2시간 30분동안 베토벤 소나타 전곡과 변주곡을 연주하는 특별한 도전을 하셨는데 공연을 끝마친 후 소감은 어떠신지

공연을 마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베토벤의 음악이 저에 모든 삶에 꽉 차있다가 떠나보낸? 그런 느낌이라 해야할까요. 전곡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드보르작을 같이 연주할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가 너무 됩니다. 제가 애정하는 곡인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2025년도에는 5월, 12월 두번의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고 두 개의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 5월은 연세금호아트홀에서 한국 작곡가와 그들이 애정하는 작곡가들의 곡을 오마주해서 작곡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12월은 Dance 라는 주제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반은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의 영화 음악으로 구성된 음반과 저의 바하 무반주 음반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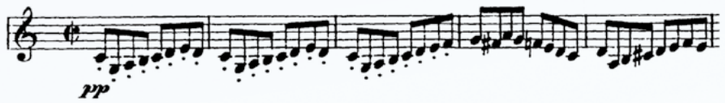
BIOGRAPHY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거쳐 툴루즈 콘서바토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김민지는 아스트랄 아티스트 내셔널 오디션 우승, 허드슨 밸리 필하모닉 현악 콩쿠르 1위, HAMS 국제 첼로 콩쿠르 1위,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와 위촉 작품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필라델피아 캄머, 트리니티 센터, 보스턴 조던 홀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하였다.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수석 멤버로 활동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는 여수에코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음악제를 이끌고 있다.

Beethoven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verture, Op. 43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번호 43

1800년 29세의 청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이탈리아 출신의 무용수 겸 안무가인 살바토레 비가노(Salvatore Viganò,1769~1821)의 요청에 따라 서주와 16개의 곡으로 구성된 2막의 발레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작곡한다. 당시 매우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실내음악 작곡가로 세간에 꽤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오페라를 비롯한 극음악은 그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더욱이 발레를 깊이 있는 예술장르로 취급하지 않던 독일 음악계의 보수적 환경이 베토벤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것이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이곡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단행하며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 일례로 서곡의 도입부를 그의 교향곡 제1번(1800년, Op. 21)에서와 같이 으뜸화음이 아닌 전혀 엉뚱한 화음(IV의 보조화성)으로 시작해 충격을 주는가 하면 그의 다른 관현악 작품에서와는 달리 하프와 바세트 호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살바토레의 현명한 상업적 전략이 꽤 적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은 제목에서 전해지는 인상이 유사해서 당시 유명세를 달리던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의 경쟁 작으로 인식되어 성공적인 초연 이후 한동안 꽤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스토리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베토벤은 서곡만 출판하게 되었고 전체 발레음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하고 도왔던 일종의 휴머니스트 신이다. 그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불과 지혜를 선물해주었고 또한 진흙과 빗물을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주된 내용이다. 서곡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이 출판되지도 못한 채 세간에 잊혔지만 발레음악 중 16번째 곡에 사용된 시골풍 춤곡의 주제는 베토벤의 피아노변주곡 작품35와 교향곡 제3번 '영웅'의 4악장에 차용되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곡의 도입 화성은 교향곡 제1번에, 서곡의 느린 서주 부분의 풍성한 현악의 하모니와 분위기는 교향곡 제2번에서 적극적으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서곡'은 전개부가 생략된 소나타 형식으로 느린 속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서주부에 이어 마치 신성 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계로 도망치는 프로메테우스를 묘사하는 듯 한 빠르고 재치 있는 제시부 주제 동기가 재미있다.

[제시부 제 1주제 동기]

바이올린에 의한 제 1주제는 변화, 발전되어 큰 합주가 되고 플루트 듀엣에 의한 아름다운 제 2주제 선율이 오보에에 의해 채색되는데 일종의 르네상스 고전 희극 오페라의 전형을 따른다. 각각 두 대의 클라리넷과 바순이 대화에 참여하고 제 2주제를 되풀이한다. 사실 서곡 이후 많은 부분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작곡가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의 오페라 오르페오(L'Orfec, SV 318, 1607)의 음악적 어휘가 재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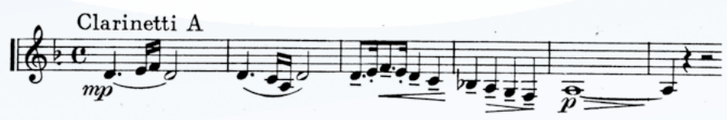
Antonín Dvořá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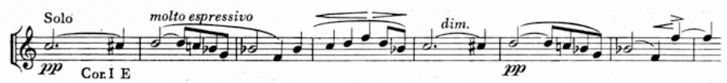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번호 104번

1892년부터 1895년까지 약 5년간 뉴욕 음악원(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New York City) 원장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드보르작(Antonín Leopold Dvořák, 1841~1904)은 1894년 그의 일생의 가장 마지막 협주곡인 나단조 첼로 협주곡을 쓰게 된다. 사실 드보르작은 이 곡을 쓰기 전까지 첼로를 위한 협주곡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전해진다.

'첼로는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악기이지만 솔로로 나설 수 있는 악기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하며 첼로의 음역대를 두고 '웅얼거리는 저음과 너무 강한 콧소리 같은 높음 음'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뉴욕 음악원의 동료 교수 빅토 허버트(Victor Herbert, 1859~1924)가 쓴 첼로 협주곡을 여러 차례 감상하게 된 후 자신감과 영감을 얻게 되어 솔로 첼로를 위한 곡을 쓰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훗날 이 곡은 많은 비평가들과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첼리스트들에게서 현존하는 최고의 첼로 협주곡이라는 극찬을 듣게 된다. 이 무렵 뉴욕 음악원은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인해 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높아진 드보르작의 위상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으로 인해 그는 결국 1895년 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고향 체코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쓰인 곡이여서인지 이 곡은 드보르작의 체코에 대한 향수가 가장 아름답고 애잔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평을 듣는다.

1악장 Allegro

서두에서 클라리넷은 다소 어두우면서도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진지한 선율로 곡을 시작하는데 이는 1악장 제 1주제 동기이다.

[1악장 제 1주제 동기]

주제는 곡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고 발전된다. 클라리넷으로부터 시작된 선율은 점차 다른 악기들과 함께 증폭되어 이윽고 다시 한 번 전체 오케스트라가 호소력 있는 소리로 강조한다. 폭풍 같은 첫 주제가 끝이 나면 음악은 재치 있게 하행하여 잠잠해지고, 저 멀리서 그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련히 보일 것만 같은 시골의 정겨운 모습이 연상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두 번째 선율이 호른 솔로에 의해 연주된다. 이 아름다운 제 2주제는 더 이상 변주, 발전되지 않고 아련히 사라져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이후 큰 합주로 이어지고 첼로 솔로는 제 1주제부터 되새기며 고향의 향기를 회상한다.

[1악장 제 2주제]

저음 현악기이지만 현의 긴장도가 무척 높아 뚜렷한 호소력을 지닌 첼로. 이 놀라운 악기에 의해 연주되는 두 주제는 깊은 영성과 호흡이 더해져 더욱 섬세한 그리움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많은 얘기가 있고 난 후 곡의 마지막은 트럼펫의 팡파르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그 길었던 호흡을 가다듬는다.

2악장 Adagio, ma non troppo

전원풍의 고요한 분위기속에서 목관악기와 첼로 솔로가 차 한 잔 기울이듯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곡은 시작된다.

Beethoven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verture, O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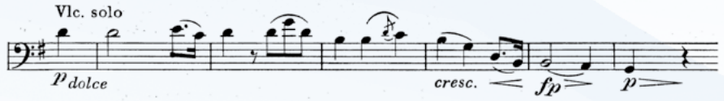
In 1800, the 29-year-old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received a major commission to write his first work for the stage, a ballet based on the Prometheus Greek myth. It was to be presented at the Hofburg Theater in Vienna with choreography by the well-known dancer Salvatore Vigano. Beethoven was later said to have been disappointed in the story line of the ballet, which does not include Prometheus's rebellion or punishment. In it, Prometheus fashions two human figures and brings them to life, but, finding himself unable to teach them reason, he takes them to Apollo to experience music, to the muses to learn tragedy, comedy and dance, and to Bacchus to feel the joys of wine. Only then are they ready to be fully hu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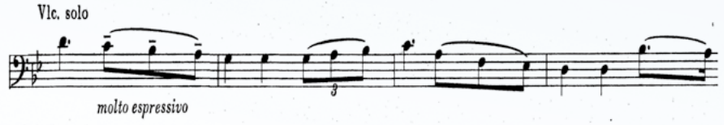
The premiere of The Creatures of Prometheus took place on March 28, 1801, and the work was repeated 23 times in that and the following year. It was an important success for Beethoven, leading eventually to the commission for his opera Fidelio. The complete music for the ballet consisted of an overture, introduction and sixteen numbers, but, since the overture was, for a time, the only overture that Beethoven had written, he often performed it separately to open concerts of his music.

Antonín Dvořá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The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B. 191, is the last solo concerto by Antonín Dvořák (1841~1904). It was written in 1894 for his friend, the cellist Hanuš Wihan (1855~1920), but was premiered in London on March 19, 1896, by the English cellist Leo Stern (1862~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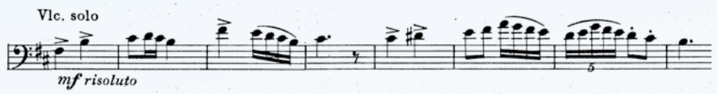
The concerto follows a typical structure of three movements of fast, slow, and fast tempi. It opens with a broad orchestral statement, bringing in the soloist after the initial themes are introduced. At this point, the soloist restates those themes in a new and more elaborate fashion. The melancholy second movement quotes a theme from one of Dvořák's own songs, "Lasst mich allein" (German: "Leave Me Alone"). The song had been a particular favourite of the composer's sister-in-law Josefina, who had recently died. Having loved Josefina before he consented to marry her sister Anna, Dvořák here paid tribute to his first love. For the final movement, Dvořák builds a rondo structure upon a jaunty march like theme. In its final bars, brief recapitulations of melodies from the previous movements are he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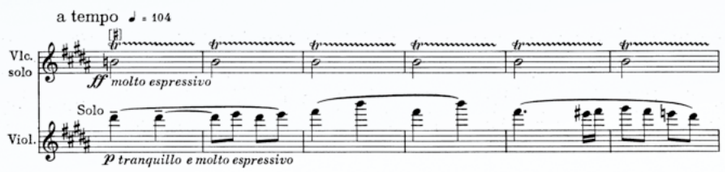
This greatest of all cello concertos was the final piece that Dvořák composed during his three-year term as Director of the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New York. Inspiration was from several sources. One was the homesickness he had harbored since he left his beloved homeland Czech. Another was the second cello concerto of Victor Herbert (1859~1924), whose premiere Dvořák attended in March 1894. Dvořák decided then and there to compose a cello concerto of his own.

[2악장 제 1주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하며 고개를 끄떡이기도 하고, 살포시 미소 지어 보기도 하는 듯 잔잔하며 아름답다. 하지만 두 번째 주제에 이르면 불현듯 가슴 아팠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듯이 애절한 호소력으로 마음 속 깊은 슬픔을 이야기한다.

[2악장 제 1주제]

눈물과 아쉬움일까? 오래 떠나 있던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기 때문일까? 곡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솔로 첼로 홀로 남아 마치 독백하듯 첫 대화를 상기시키며 외롭게 무언가를 부르짖어 본다. 하지만 곧 체념하듯 잠잠하게 곡은 마무리된다.

3악장 Allegro moderato

체코 민속 선율 일부가 차용된 마지막 악장은 앞선 악장들과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전투를 준비하는 듯 분주한 도입부는 그 에너지를 모아 금세 첼로 솔로에게 넘겨주는데, 솔로는 지체할 틈도 없이 서둘러 멋진 론도 주제를 소개한다.

[3악장 론도 주제]

젊은 날의 치열했던 삶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한 고향을 향해 떠나는 거대한 증기선에 몸을 맡긴 채 대서양을 횡단하는 작곡가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경쾌한 보헤미안 선율과 리듬이 휘몰아치고 나면 후반부에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부차 선율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드보르작은 그의 처형 요세피나 카우니쵸바 네 체르마코바(Josefina Kaunitzova, nee Čermáková, 1849~1895)의 죽음을 접하고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미 완성된 이 곡의 후미에 바이올린 솔로와 첼로의 듀엣을 첨가한다. 사실 2악장 후미의 슬픈 선율 또한 그녀를 염두에 두고 쓴 노래(Leave Me Alone in My Fond Dream)의 한 소절을 인용한 것이다.

[3악장 후반부 바이올린 솔로와 첼로 듀엣]

평생토록 드보르작의 좋은 친구였던 요세피나는 사실은 그가 결혼을 간절히 원했었던 그의 이루지 못한 첫 사랑이었다. 바이올린 솔로는 죽음을 앞둔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을 묘사하는 듯 자꾸만 하늘 위로 솟아오르고 첼로는 작곡가 본인의 애처로운 모습인 양 바이올린의 고운 움직임을 묵묵히 감싸준다. 두 솔로 악기가 서로 속삭이듯 주고받는 대화와 이중창은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론 애틋하기도 하다. 훗날 작곡가의 말처럼 마치 생의 마지막 한숨이 그러하듯, 힘을 다한 솔로 첼로가 잠잠해지고 이어 오케스트라가 폭풍같이 휘몰아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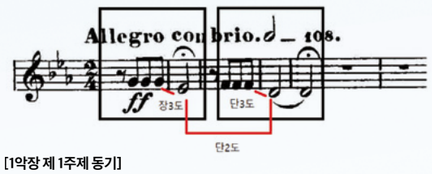
Three decades before, Dvořák had been in love with Josephina Čermáková (1849~1895), an aspiring sixteen-year-old actress to whom he gave piano lessons. Even though she rejected his love, he retained a powerful affection for her. While he was composing the second movement of this concerto, a letter from Josephina revealed that she was seriously ill. In her honor, he quoted, in the middle section of this movement, the melody of Leave Me Alone in My Fond Dream, his song which was a particular favorite of hers. She died in May 1895, one month after he resettled in Europe. A few weeks later, he revised the final pages of the concerto's finale to include a second quotation from the song, this time as a memorial trib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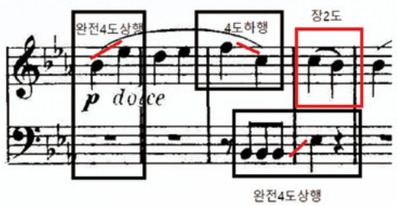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베토벤 교향곡 제 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

부제 '운명' 교향곡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교향곡 5번. 1악장에서 인상 깊게 등장하는 짧은 주제 동기, 즉 네 개의 그 유명한 연타 음은 사실은 베토벤이 자신의 이 전 교향곡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그의 오래된 음악적 어휘였다. 이는 또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많은 작품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베토벤의 제자 카를 체르니는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구상할 당시 프라터 공원을 지날 때 들은 노랑촉새의 노랫소리에서 착안하였다고도 증언하지만 고증된 바 없다. 더욱이 '운명'이라는 부제는 작곡가 본인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훗날 일본에서 붙여졌다. 따라서 이 곡에 대한 고정관념 즉 운명의 두드림이라 잘못 알려진 네 개음의 특별한 의미부여를 잠깐 잊고 우리가 이 곡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베토벤이 어떻게 이 단순한 동기를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생의 열정과 분노, 승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숨막히게 표현해내는 것인 가일 것이다. 이 음악적 모티브는 비단 1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향곡 전체에 걸쳐 놀라운 변모를 보인다.

1악장 Allegro con brio

주제 동기는 사실 세 개의 연타 음과 하나의 종결 음으로 반복되는데 크게 장3도와 단3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종결 음(Eb, D)은 반음 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 단조 (C Minor)조성의 가장 중요한 "도"(C)는 함축되어 있다.

[1악장 제 1주제 동기]

이 주제 동기의 명료한 구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각 악장의 모든 주제는 철저히 이 동기 구조에서 시작된 변주이며 그 논리적 일관성과 정교함은 마치 주어진 공리 (Axiom)에서 시작하여 치밀한 논리전개를 거쳐 완전체를 이루는 수리 기하학(Geometry)과 닮아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거침없이 내달리며 반복적으로 4개의 연타 음을 주장하는 첫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주제는 매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선율이다.

[1악장 제 2주제 동기]

이 두 번째 주제는 제 1주제 동기 전체의 전위 형태로 G에서 시작되어 D로 내려간 완전 4도를 뒤집어 Bb에서 Eb으로 상/하행 시켰다. 또한 제 1주제 동기에서 단 2도로 결론 지었던 것은 장 2도로 밝아졌다. 이러한 기법은 고전주의 음악에서 주제 간의 명확한 대조(contrast)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 음악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며 삶과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각을 잃기 전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음악적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이 긍정적인 선율은 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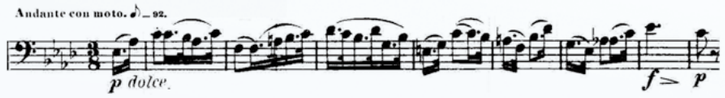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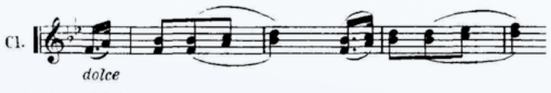
The Symphony No. 5 in C minor of Beethoven, Op. 67, was written between 1804 and 1808. First performed in Vienna's Theater an der Wien in 1808, the work achieved its prodigious reputation soon afterward. E. T. A. Hoffmann described the symphon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of the time". As is typical of symphonies during the transition between the Classical and Romantic eras, Beethoven's Fifth Symphony is in four movements. Like Beethoven's Eroica (heroic) and Pastorale (rural), Symphony No. 5 was given an explicit name besides the numbering, though not by Beethoven himself. It became popular under "Schicksals-Sinfonie" (Fate Symphony), and the famous five bar theme was called the "Schicksals-Motiv" (Fate Motif).

The first movement begins with the four most famous notes in all music history. Usually interpreted as "fate knocking at the door," this iconic opening idea forms the basis of the entire symphony; Beethoven constructs his grand musical forms from simple building blocks, making the music logical. The opening idea soon flows throughout the orchestra until the French-horns expand on it, introducing a new, softer theme in the violins. This positive melody is derived from the opening idea, but turned upside-down; in a way, it is its mirror image. The opening returns and the main ideas of the movement are repeated, leading to a tumultuous development. As the development progresses, the music becomes weaker, as if dying away, until the opening idea makes a powerful reappearance. The oboe plays a brief, touching solo before the other main ideas of the movement are reprised. In the end, the fateful opening idea ultimately prevails.

다시 심각해지고 강한 에너지가 추가되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달리기 시작한다. 청각을 잃은 억울한 음악가의 고뇌에 찬 분노일까? 숨 막히게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그의 음악은 불연듯 잠깐 멈추어 서서 오보에의 아름답고 슬픈 소절로 호흡을 가다듬지만 어느 샌가 제자리로 돌아와 삶에 대한 치열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며 막을 내린다. 1악장과 3악장은 그 프레이징 구조에서도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규칙적인 짝수로 반복되는 각 소절의 마디 수는 제시부 종결주제와 재현부 코다에 이르러 불규칙적인 홀수로 뒤바뀌어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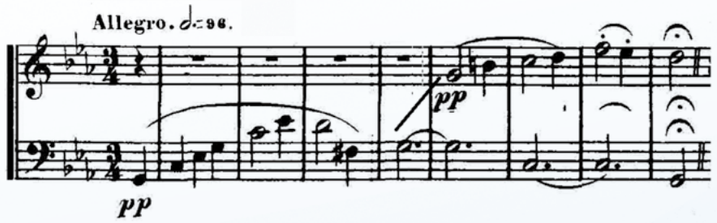
2악장 Andante con moto

변주곡 형식으로 주제부가 쉴 새 없이 변화하며 반복한다. 주제는 1악장의 제 2주제의 연장선에 있으며 부점 리듬과 함께 길어지고 서정성을 담고 있어 1악장의 다소 기계적이며 기악적인 제 1주제 동기 음형구조에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 마치 오페라의 한 아리아를 연상시킨다.

[2악장 변주 주제 전반부]

주제부 후반부는 완전 4도 대신 단 3도, 장 3도의 진행을 보이는데 이는 1악장 제 1주제 동기의 전위 없는 역행 진행이며 4악장의 중요 동기가 된다.

[2악장 변주 주제 후반부]

이 주제군은 매번 뒤틀어진 화성과 더불어 다소 어둡게 종결되다가 리듬과 장식이 추가되면서 변주되어 수차례 반복된다. 변주가 진행되면서 주제는 단조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감7화음의 애매한 구간도 거치며 색채를 달리하다가 꽤 웅장하게 막을 내린다.

3악장 Allegro

세도막 형식의 스케르초로 전반부 주제는 그 불규칙적인 프레이징이 청자의 시간 감각을 빼앗아 버린다. 음산해 보이는 긴장감이 폭풍 전야와도 같다. 단순해 보이는 이 1도 펼침 화음 형태의 주제부는 사실 1악장 제 2주제와 2악장 주제가 융화된 것으로 작곡가 본인의 철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분명히 1악장 주제 동기에서 시작된 각 악장의 주제 변주가 잘 짜 맞추어져 단순 명료한 1도 화성의 펼침 형태로 아름답게 귀결되는 것이 기가 막히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전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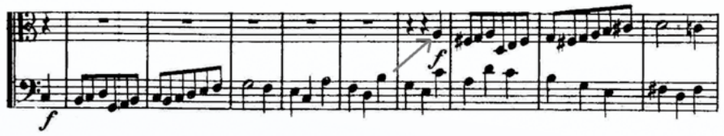
굉장히 흥미로운 스케르초 주제 후반부는 1악장 제 1주제 동기의 확장 형태로 4개의 연타리듬을 반복하며 유지한 채 “G,G,G,Eb”의 기본음형구조는 “G,G,G,F”로 확장, 변주되고 장 2도 하행 동기가 반복된다.

The slower second movement begins with a cogitative melody in the violas and cellos, to which the woodwinds and violins respond with reassuring phrases. A brighter, more optimistic theme emerges in the clarinets and bassoons, but it is interrupted by unsure, questioning music in the violins. Turning away from these doubts, the theme resumes spectacularly in the brass. These two themes alternate and are varied with each appearance, growing more complex as the movement unf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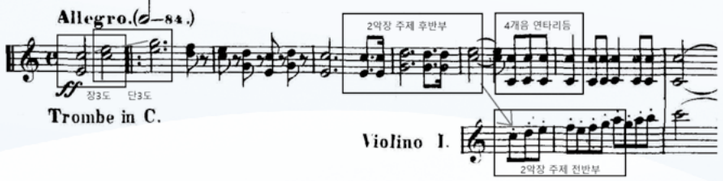
After a brief, hazy introduction, the third movement begins with an austere march based on the rhythm of the four notes that began the symphony. A contrasting middle section expels the oppressive mood of the march with an upsurge of life; when the march returns, it appears in a weakened form featuring pizzicato st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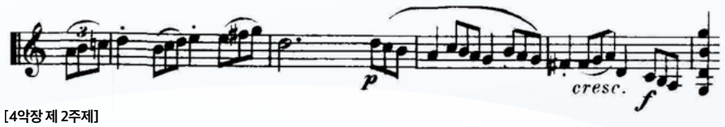
The final movements are linked by a mysterious bridge that crescendos to the triumphant entrance of the trombones, which mark the beginning of the finale. Beethoven presents a series of soaring, triumphant themes, leading to a final, turbulent development. Suddenly, the music slows and becomes quieter as the weakened version of the march from the third movement reappears. The uplifting main themes of the movement are then reprised in preparation for an extended, triumphant c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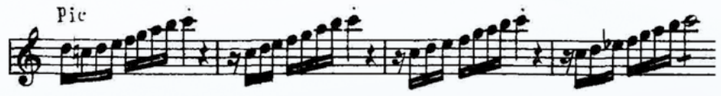
[3악장 스케르초 주제 후반부]

이윽고 등장하는 푸가 형식의 트리오는 그 불규칙적인 프레이징과 헤미올라 (3박과 2박의 공존) 및 저음현의 빠르고 강한 다이내믹 제스처가 일품인데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0869)는 이 트리오의 엉뚱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 춤”이라 명명했고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이 트리오와 코다의 연결이 꽤 무섭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3악장 트리오 주제]

4악장 Allegro

3악장 코다에서 현의 트레몰로에 의해 긴장이 증폭되면 쉼 없이 곧바로 4악장으로 이어진다. 트럼펫과 호른이 제 1주제를 금빛 찬란하게 연주하고 이전 악장까지 쌓여왔던 긴장감은 승리와 희망의 감정으로 승화된다. 제 1주제와 제 2주제 모두 1악장 주제 동기를 기본으로 하며 1, 2 악장의 모든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4악장 제 1주제]

제 1주제와 제 2주제를 연결 짓는 구간에서 등장하는 호른의 부차주제가 희망찬데 이윽고 등장하는 제 2주제는 1주제와의 큰 대비 없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는 4개음 연타리듬이 2악장 주제 전반부의 논리로 변주된 형태이다.

[4악장 제 2주제]

주제 구성에서 잠깐 제외됐던 3악장 주제가 다소 어두운 빛깔로 잠깐 재현되는데 마치 생의 승리 앞에 과거의 슬픔을 회상하는 듯 흥미롭다. 이어 재현부가 화려하게 등장하고 모든 주제가 다 장조 (C Major)조성위에서 연주되면 장대한 코다로 들어간다. 코다는 본 악장의 부차주제와 제시부 종결 주제로 구성되며 제 1주제가 빠른 템포로 화려하게 재현되는 가운데 피콜로가 마치 피콜로 협주곡을 연주하는 듯 눈부시게 활약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생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한다.

[4악장 제 2주제]

글 지휘자,작곡가 박희정

Ludwig van Beethoven

Edward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47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사장조, 쾨헬번호 313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쾨헬번호 314

Franz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슈베르트
교향곡 제6번 다장조, '작은 다장조'

두 개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Mozart Flute Concertos

지휘 함신익

플루트 조성현

02. 22 Sat

5:00 PM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예매 예술의전당 interpark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ONGSAN WE 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HM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Kyutai Shim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Sibelius Special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한국 초연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Upcoming Concerts

01.18

서대문구 초청 신년음악회

연세대학교 대강당 — 오후 5시

무료 입장

02.22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
'두 개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절찬 판매 중

03.13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I
'말러 교향곡 9번'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LOTTE CONCERT HALL

티켓 절찬 판매 중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VIP석은 100석 한정

1월 31일까지 구매시 10%	VIP석	9회	~~1,080,000원~~ →	972,000원
	R석	9회	~~900,000원~~ →	810,000원
	S석	9회	~~630,000원~~ →	567,000원
	A석	9회	~~450,000원~~ →	405,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9회	~~450,000원~~ →	200,000원
	B석	9회	~~27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 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SYMPHONY SONG SHINIK HAHM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SYMPHONY SONG SHINIK HAHM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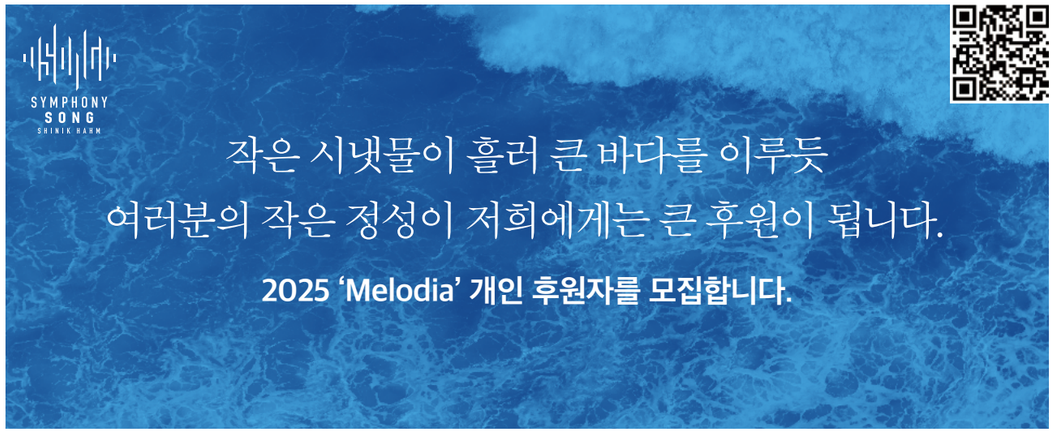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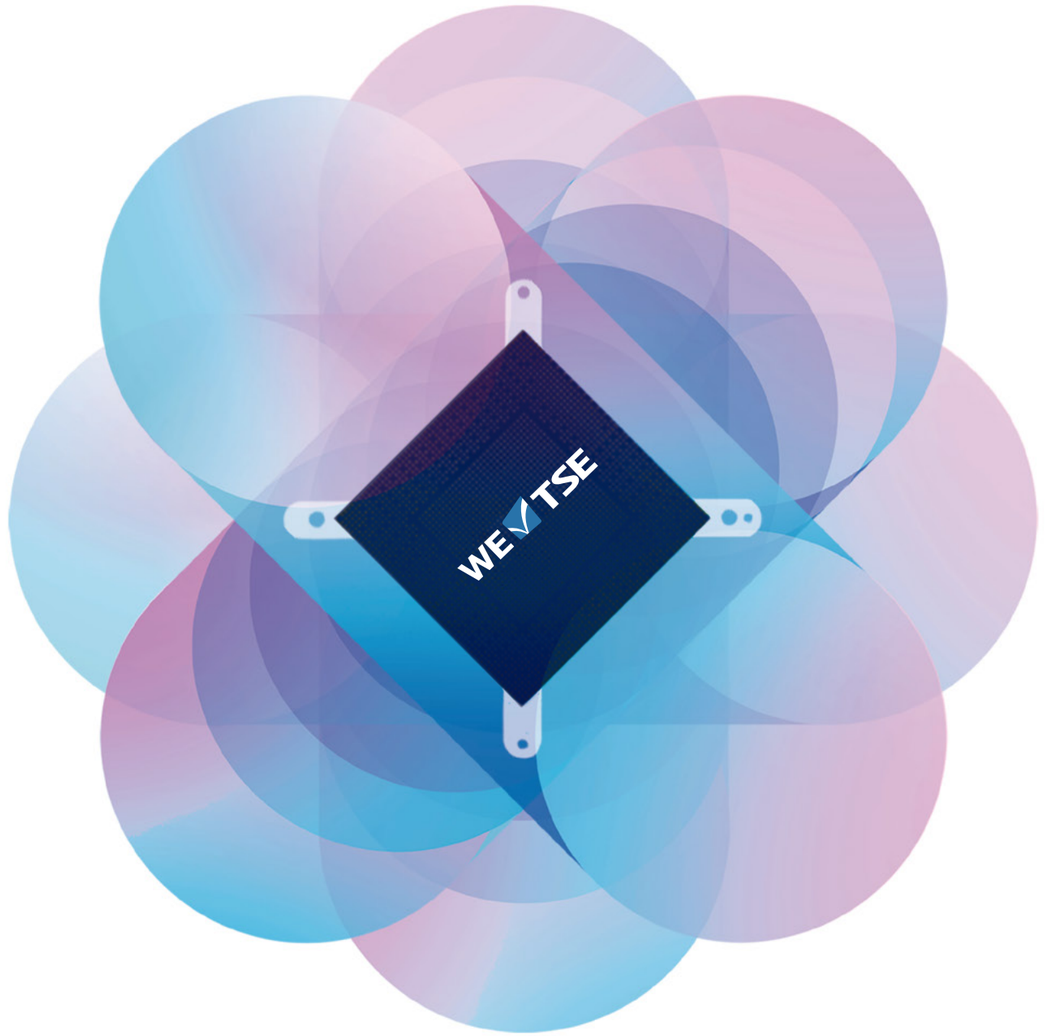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우리는 TSE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Lahyeon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LAHYEON

- 성 형 MOLDING
- 피 부 SKIN
- 메 디 스 파 MEDISPA
- 비 만 OBESITY
- 두 피 SCALP
- 항 노 화 ANTI-AGING
- 지 방 성 형 A FATTY MOLDING
- 성 의 학 클 리 닉 A SEX CLINIC
- 세 포 재 생 전 문 클 리 닉 CELL REGENERATION CLINIC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 FA & BIO분야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재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DSK

DSK
Display Secondary Battery Knowledge
㈜ 디에스케이
www.dsk.co.kr

protox
보툴리눔독소제재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alti hightech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 · 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GOLFZON NEWDIN HOLDINGS
GOLFZON
GOLFZON COMMERCE
GOLFZON COUNTY
GOLFZON GDR ACADEMY
GOLFZON DECA
GOLFZON ZOIMARU
NEWDIN CONTENTS
GOLFZON MEDIA
GOLFZON CM
GOLFZON AMERICA
GOLFZON CHINA
GOLFZON VIETNAM
GOLFZON JAPAN
GOLFZON LEADBETTER
NEWDIN PASTEL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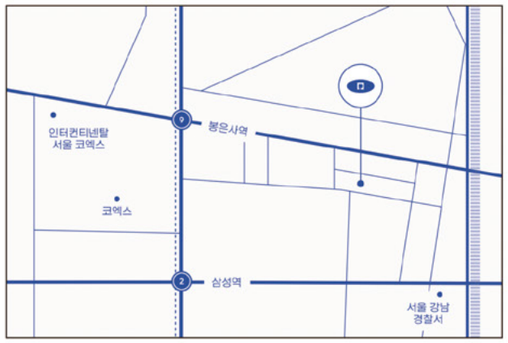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82 (0)2 2019 8990

UNDER PRESSURE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OOD Software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